

## 오토 A. 뵘어의 《운명적 영감에 빠진 문학가들》

# 자연과 일상의 파편 속에서 길어 올린 영감

글\_ 정여울

운명적 영감에 빠진  
문학가들

Sternstunden der Literatur



노래방에서 가끔 철 지난 옛 노래를 부르다보면 그 가사가 지닌 고전적 ‘영감(inspiration)’의 차이에 화들짝 놀라곤 한다. 80년대 유행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랑 노래는 ‘자연’을 영감으로 가사의 아이디어를 메우곤 했다. 달, 강, 바다, 새, 해변, 별, 태양, 하늘, 풀잎 등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영감의 소재였다. 자연은 가히 에로스의 보물창고였으며 연인들이 사랑을 나누는 보금자리 또한 자연의 동지 속이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의 노래들은 그 결정적 영감을 도시 문명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의 세계에서 찾고 있다. 90년대 이후의 유행가 속에서 연인들은 엘리베이터에서 키스를 나누고 카페에서 소개팅과 데이트와 이별을 모두 해결하며 채팅으로 운명적 사랑을 낚는가 하면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한다. 유행가는 이토록 명징하게 당대인의 지배적 ‘영감’의 소재를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감은 반드시 위대한 예술가의 전유물만은 아닐 것이다. 삶의 이정표가 극적으로 바뀌는 순간, 도무지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기적처럼 출구를 찾는 순간, 번개를 맞은 듯 인연을 확신하게 되는 순간 등등. 이 모든 ‘변칙하는 황홀한 순간’이 모두 생의 영감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 아닐까. 친구를 만나든 연인을 만나든 똑같은 장소(카페, 노래방, 영화관, 술집)를 뱅뱅 돌아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영감의 장소는 점점 협소해지고 있다. 이제 영감의 주된 메커니즘은 ‘자연을 통한 계시’가 아닌 ‘미디어를 통한 브레인스토밍’으로 바뀌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 책, 《운명적 영감에 빠진 문학가들》을 읽으며 느꼈던 부러움도 바로 그것이었다.

위대한 작가들에게는 풍요로운 영감의 창고가 있고 내게는 없다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곳곳에서 자연이 말을 거는데 내게는 자연이 말을 걸어줄 공간 자체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일까. 가끔씩 자연을 접할 때마다 아름답고 친밀하다는 생각보다는 낯설거나 무서운 생각이 먼저 든다. 자연이 문명에 찌든 나의 몸을 밀어내는 듯한 소외감, 내가 도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자연과 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영원히 끊어져버릴 듯한 불길한 예감이 고개를 들곤 한다.

위대한 작가들의 영감은 대부분 자연에서 온다. 이 책에서 소개된 단테, 콘라드, 프루스트, 릴케, 휠덜린, 안데르센, 노발리스 등의 걸출

### ●이 글을 쓴 정여울은

미디어 현타 로 <문학동네> <한국문학> <씨네21> 등 여러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20세기 초 몽유약식의 담론적 특성 연구> <비정치성의 정치성, 비역사성의 역사성-이옥론>이 있으며, 공저로는 <이것은 애니메이션이 아니다> <book+ing, 책과 만나다> <국민 국가의 정치적 상상력>이 있다.

한 작가들은 결정적 영감의 순간을 자연 속에서 체험한다. 문명화된 도시 속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웅장한 자연의 스케일, 지리멸렬한 일상 속에서는 결코 체험할 수도 상상할 수 없는 자연의 미세한 숨결들. 그러나 인간이 자연을 '자원'으로 대상화하고, 문명과 야생의 이분법이 작동하게 된 이후,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가교는 점점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인간과의 소통의 끈이 떨어진 이후 너무 슬퍼서 말을 잃은 자연, 그 자연의 침묵을 읽어내는 일, 그것이 바로 현대인이 새롭게 개척해야 할 '영감'의 메커니즘이 아닐까. 그 침묵에 온몸의 세포를 열어놓는 자만이 자연의 억눌린 목소리를, 그 계시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예술가에게 저절로 찾아와 스스로 뜨거운 상징이 되고 스스로 춤추는 영감도 있다. 그러나 영감은 선택받은 존재들에게만 찾아오는 기적적인 행운만은 아니다. 범속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자갈한 일상의 파편들 속에서 소중한 영감을 길어 올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영감의 속삭임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조차도 나를 위해 영감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우리는 무심코 뭔가를 응시하다가 전체를 얻을 수 있다. 원래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광경에서 내밀하고 진실한 것이 생겨난다. ....지금껏 분명하게 보이던 세계와는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만약 '이 위대한 작가들에게 어떤 영감이 떠올랐을까'를 궁금해 하며 이 책을 읽는 독자라면, 이 책의 내용에 실망할지도 모른다. 이 책은 작가들에게 영감이 찾아오는 순간을 상상적으로 재현할 뿐 독자가 영감의 내용 자체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감을 얻는 과정을 독자가 상상해보고 그 분위기를 간접 체험해보는 것도 즐거운 독서가 될 수 있다. 영감은 일회적이고 개별적이며 순간적인 경험이다. 누군가의 정신 속에서 단 한 번 스쳐가는 기적적인 순간. 그래서 진정한 영감은 소통될 수 없다. 독자는 다만 그런 영감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작가가 느꼈던 고뇌의 과정을 추체험할 수 있을 뿐이다. 진정한 영감은 도둑질할 수도 표절할 수도 닮으려 애쓸 수도 없다.

이 책에서 가장 감동적인 영감의 스토리는 자연이 아닌 인간의 목소리였다. 젊은 시절 안톤 체홉은 자신의 곁을 좀처럼 떠나지 않는 가난과 싸우느라 생계를 위한 글쓰기 이상의 열정을 바칠 수 없었다. "저는 지금까지 제 문학적 활동에 대해 깊은 생각 없이 아주 경솔하고 부주의하게 굴었습니다. 스물 네 시간 이상 매달려 작업한 이야기가 단 한 편도 없습니다" "기자들이 대화화제에 대한 기사를 쓰듯이, 독자들이나 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서 적당히 기

계적으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체홉에게 어느 노작가가 편지를 보낸다. 그는 1886년 당시 러시아의 저명한 문인이었던 디미트리 그리고로비치였다. "이제는 날림으로 글쓰는 짓을 그만두시오. 나로서는 당신의 재정적인 형편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오. 낙관적이 아니라면, 옛날에 우리가 그랬듯이 굶주리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머리를 스치는 인상들을 보다 성숙한 완벽한 작업을 위해 간직했다가, 단숨에 줄속으로 내갈기지 말고 영감이 떠오르는 행복한 시간에 종이에 옮기시오. 그러한 작품 하나가 여기 저기 신문에 실리는 수백 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보다 수백 배 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안톤 체홉에게는 이 편지야말로 위대한 영감의 진원지였다. 자신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며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젊은이에게 이러한 편지를 써주는 노작가의 진심에 체홉은 감동한다. 그는 이제 생계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 낭비하는 일을 그만두리라 마음먹는다. 그에게 노작가의 편지는 "이 세상 어떤 자격증보다도 값진 것"이며 "신출내기 작가에게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보수"였다. 위대한 영감이 스쳐가는 기적적인 순간만이 진정한 영감의 무대는 아니다. 체홉에게는 이 한 통의 편지가 그 어떤 몽환적 영감보다 소중한 '세속의 계시'였던 것이다.

이제는 알 것 같다. 자연이 나를 밀어내는 듯한 그 느낌이, 위대한 작가가 아닌 내가 소박하게 들을 수 있던, 자연의 수줍은 흐느낌이었음을. 이 콘크리트도, 플라스틱도, 디지털 영상도 비록 인간의 가공을 거친 것이긴 하지만 자연의 어디에선가부터 아주 먼 길을 걸어 온 존재들일 것이다. 그들의 애처로운 몸짓을 읽어낼 수 있을 때, 비록 작가는 아니지만 나에게도 새로운 영감의 시간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부터는 내 방의 컴퓨터와 인스턴트 커피와 과자 부스러기와 펜을 뚫어지게 쳐다보기도 하고 길가의 보도블럭이나 건물의 콘크리트 벽, 자동차와 네온사인에서, 그 틈새에 혹시 숨어서 흐느끼고 있을지도 모를 자연의 목소리를 듣고자 귀 기울여 봐야 할 것 같다. 장 파울은 인간의 한계야말로 인간의 영감이 발생하는 장소임을 알았다. "인간의 정신 자체는 피부와 점액, 모세관을 가진 5피트 크기의 육신에 둘러싸여 있으며, 거대한 동근 눈과 동근 태양을 가진 우주에 비하여 겨우 다섯 개의 비좁은 창문, 오감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인간은 우주를 보고 우주를 새롭게 창조한다." 우주의 티끌 만도 못한 무게를 가진 인간의 가슴에 저마다 서로 다른 70억의 우주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아름다운 신비이며 위대한 가능성이 아닐까. **한**